

LG아트센터  
2020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20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0

CoMPAS20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0

2020.4.1-11.8



**4.1** wed - **3** fri  
7:30pm  
밀로 라우 연출 <반복 - 연극의 역사>  
R 80,000 S 60,000 A 40,000

**5.13** wed - **15** fri  
7:30pm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5.16** sat - **17** sun  
sat 7pm, sun 3pm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5.22** fri - **23** sat  
fri 7:30pm, sat 5pm  
크리스탈 파이트 안무/연출 <검찰관>  
R 80,000 S 60,000 A 40,000

**6.9** tue  
7:30pm  
알렉상드르 타로  
R 80,000 S 60,000 A 40,000

**6.17** wed - **20** sat  
weekdays 7:30pm, sat 5pm  
세븐 핑거스 <여행자>  
R 80,000 S 60,000 A 40,000

**6.21** sun  
5pm  
스윙글즈  
R 80,000 S 60,000 A 40,000

**6.25** thu - **27** sat  
thu-fri 7:30pm, sat 5pm  
아크람 칸 <제노스>  
R 80,000 S 60,000 A 40,000

**9.16** wed - **27** sun  
tue, wed & fri 7:30pm  
thu & sat 2:30pm & 7:30pm  
9.20 sun 2:30pm & 7:30pm  
9.27 sun 2:30pm

매튜 본의 <레드 슈즈>  
VIP 145,000 R 120,000 S 80,000 A 60,000

**10.30** fri - **11.1** sun  
fri 7:30pm, sat 7pm, sun 3pm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R 80,000 S 60,000 A 40,000

**11.6** fri - **8** sun  
fri 7:30pm, sat 5pm, sun 3pm  
티모페이 콜리아빈 연출 <오네긴>  
R 80,000 S 60,000 A 40,000

**Notice**  
CoMPAS20의 평일 공연 시작 시간이 7:30p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2000년 개관하여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해 온  
 LG아트센터는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In pursuing this objective, LG Arts Center receives valuable  
 resources in the form of financial subsidies from its parent  
 LG group to offset the operational losses incurred  
 in the presentation of the arts. LG Arts Center strives to endorse  
 diverse artistic values and expressions of our times to the Korean  
 public, and aspires to become the premier performing arts venue  
 for both our valued audiences and artist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artistic inspirations and amazing viewing experiences for  
 everyone. Our aim is to win their trusts and make LG Arts Center  
 their most preferred presenter of performing arts in Korea.

# CoMPAS20 할인 안내

## 개별공연 티켓 오픈

**2020.1.21(화) 10am**

• 매튜 본의 <레드 슈즈>는 추후 별도로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 조기에매 할인

~ 2.29(토)

- 2월 29일(토)까지 개별공연 구매 시 15% 할인

### 몽샤 할인

~ 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동일 공연의 동일 회차, 동일 등급 4매 이상 구매 시 20% 할인(선착순 회당 100매)

### 청년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만
- R, S 20%, A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실버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 외 1인까지
- R, S, A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공연예술전문가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각 공연별 차등 할인 제공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할인

~ 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아트 컬렉션!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공연을 '신한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공연별 선착순 200매)
- \* 해당공연: 에이프만 발레단 공연 2편  
 크리스탈 파이트 <검찰관>  
 세븐 핑거스 <여행자>  
 매튜 본의 <레드 슈즈>  
 티모페이 콜리아빈 연출 <오네긴>

### 신한카드 10% 할인

~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예매 시 10% 상시 할인 제공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상시 할인은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20'에만 해당합니다.

# CoMPAS20 패키지

## 패키지 티켓 오픈

2020.1.16(목) 10am

##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안내

- CoMPAS20 패키지는 LG아트센터 웹사이트(PC)와 전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을 상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패키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각 공연의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
- 패키지를 구매하신 관객께는 '패키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으로 총 2매까지 '동행인 할인' 좌석을 구매할 수 있으며, 20% 할인이 제공됩니다. (개별공연 티켓 오픈 전까지는 '전화'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 구성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 매튜 본의 <레드 슈즈> 티켓 별도 오픈

본 공연은 CoMPAS20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선 예매 기간 및 별도의 할인율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오픈 시점 및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문의 및 예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www.lgart.com](http://www.lgart.com)
- 매표소: 평일 9am - 6pm(주말, 공휴일 휴무)  
Tel. 02-2005-0114  
E-mail.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답하고, 합하게 공연 볼 줄 아는  
연극/무용 관객들을 위한 패키지

## 더블 패키지

3.31(화)까지

연극, 무용, 서커스 장르 모두 선택 시 30% 할인  
\*에이프만 발레 작품 2편 중 한 편 선택 시 총 7편,  
모두 선택 시 총 8편

4.1(수)-3(금)  
밀로 라우 연출 <반복 - 연극의 역사>

5.13(수)-15(금)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5.16(토)-17(일)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5.22(금)-23(토)  
크리스탈 파이트 안무/연출 <검찰관>

6.17(수)-20(토)  
세븐 핑거스 <여행자>

6.25(목)-27(토)  
아크람 칸 <제노스>

10.30(금)-11.1(일)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11.6(금)-8(일)  
티모페이 콜리아빈 연출 <오네긴>

보리스 에이프만 작품 1편 선택 시 최대 180,000원 할인

VIP+R	600,000	→	420,000
R	580,000	→	406,000
S	440,000	→	308,000
A	300,000	→	210,000

보리스 에이프만 작품 모두 선택 시 최대 216,000원 할인

VIP+R	720,000	→	504,000
R	680,000	→	476,000
S	520,000	→	364,000
A	360,000	→	252,000

러시아 문학의 지성과 감성을 무대에서 만나다!

## 러시아 문학 패키지

5.12(화)까지

러시아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공연  
4편 선택 시 20% 할인

5.13(수)-15(금)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5.16(토)-17(일)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5.22(금)-23(토)  
크리스탈 파이트 안무/연출 <검찰관>

11.6(금)-8(일)  
티모페이 콜리아빈 연출 <오네긴>

VIP+R	400,000	→	320,000
R	360,000	→	288,000
S	280,000	→	224,000
A	200,000	→	160,000



드라마 발레의 거장 보리스 에이프만의 귀환 맞이

## 에이프만 패키지

5.12(화)까지

에이프만 발레 공연 2편 모두 선택 시 15% 할인

5.13(수)-15(금)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5.16(토)-17(일)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VIP	240,000 → 204,000
R	200,000 → 170,000
S	160,000 → 136,000
A	120,000 → 102,000

나의 취향은 내가 결정한다!

## 자유 패키지

기획공연 대상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9편 이상 선택 시 35% 할인  
5.12(화)까지 예매 가능

6편 이상 선택 시 25% 할인  
6.8(월)까지 예매 가능

3편 이상 선택 시 15% 할인  
6.24(수)까지 예매 가능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을 상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oMPAS20 프로그램

## THEATRE & DANCE

밀로 라우 연출 <반복 - 연극의 역사>  
Milo Rau  
'The Repetition. Histoire(s) du théâtre (I)'  
4.1wed - 3fri

에이프만 발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Beyond Sin' A Ballet by Boris Eifman  
5.13wed - 15fri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Anna Karenina' A Ballet by Boris Eifman  
5.16sat - 17sun

크리스탈 파이트 안무/연출 <검찰관>  
Kidd Pivot 'Revisor' by  
Crystal Pite & Jonathon Young  
5.22fri - 23sat

아크람 칸 <제노스>  
Akram Khan Company 'XENOS'  
6.25thu - 27sat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Ballet Rambert & Sadler's Wells  
'Enter Achilles'  
A work by Lloyd Newson (DV8 Physical Theatre)  
10.30fri - 11.1sun

티모페이 클리아빈 연출 <오네긴>  
Red Torch Theatre 'Onegin' by Timofey Kulyabin  
11.6fri - 8sun

### Notice

CoMPAS20의 평일 공연 시작 시간이 7:30p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CIRCUS

세븐 핑거스 <여행자>  
The 7 Fingers 'Passagers'  
6.17wed - 20sat

## ENTERTAINMENT

매튜 본의 <레드 슈즈>  
Matthew Bourne's 'The Red Shoes'  
9.16wed - 27sun

## CLASSICAL MUSIC

알렉상드르 타로  
Alexandre Tharaud  
6.9tue

## MUSIC

스윙글즈  
The Swingles 'The Evolution'  
6.21sun



“2018년 유럽 연극계 최고의 작품”

“Best Theater in Europe in 2018” New York Times

“놀랍도록 성숙하고, 명쾌하며 강렬한 작품”

“It is an extraordinarily mature, crystalline and compelling piece of theatre.” The Guardian

### 세계 연극계에 몰아친 다큐멘터리 씨어터 돌풍의 주역

2012년 4월 어느 날, 벨기에 리에주 근교에 사는 이세인 자르피는 한 무리의 남자와 술집을 나선 후 꼼꼼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용의자들은 법정에서 세워졌지만 이 사건의 진실-왜 이 남자가 살해당해야 했는지,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살인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연출가 밀로 라우는 <반복 - 연극의 역사>를 통해 이 실제 사건을 연극으로 옮기며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연극은 어떻게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희생자를 무대 위로 불러 낼 것이며, 어떻게 폭력을 재연할 것인가? 진실은 무엇이고, 예술은 어떻게 현실에 개입할 것인가?

현재 유럽 연극계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연출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밀로 라우는 ‘다큐멘터리 씨어터’의 선두주자라는 칭호를 넘어 이제는 가장 연출가의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 그는 테러, 폭력, 고문, 종교, 소아성애자 등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계나 터부도 없으며, 때로는 급진적인 해석이나 표현 방식으로 인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심지어 특정 국가로부터 입국이 불허되거나 소송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언제나 무대를 실험과 탐사의 장으로 만들었고, 무대가 ‘재연’이 아니라 ‘진실’과 ‘진짜’를 통해 진정한 카타르시스의 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연출가다.

<반복 - 연극의 역사>를 통해 밀로 라우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폭력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함께 던진다. 이 참혹한 사건을 진심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공감하게 만들기 위해 단순히 장면을 재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적 기법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게 한다. 또한 연극을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으로도 봐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듯 제작 과정 또한 재연한다. 프로페셔널 배우들과 더불어 세 명의 아마추어 배우를 캐스팅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들과 함께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각도로 재연하면서 우리 시대 연극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성찰하게 한다. 초연 이후 아비뇽, 에든버러, 파리가을축제 등 유럽의 굵직한 페스티벌에 모두 초청되며 다큐멘터리 씨어터 돌풍을 일으킨 밀로 라우의 작품을 만나보자.

4.1 wed — 3 fri

7:30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100분(휴식 없음)  
Duration: 100mins with no interval

관람연령: 19세 이상  
Age Guidance: 19+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French and Flemish with  
Korean surtitles.

**Notice**  
공연 중 흡연 장면 및 포그 머신을 사용한  
연기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the smoking of  
cigarettes and the use of haze machines.

THEATRE

# 밀로 라우 연출 <반복 - 연극의 역사> Milo Rau 'The Repetition Histoire(s) du théâtre (I)'

From the very beginning, theatre has been an incantation of the dead, a ritualized experience of original sins and collective traumas. In the first part of Milo Rau's curated series 'Histoire(s) du théâtre (I)' the director and author approaches tragedy in the form of an allegorical crime game. What's at the beginning of a crime? Intention or coincidence? What role does the audience play? What is the collective's fault? Can a crime be reconstructed at all? And who will be on stage? Together with the four actors Sara De Bosschere, Sébastien Foucault, Johan Leysen and Tom Adjibi, as well as the storage man Fabian Leenders and the dog-sitter Suzy Cocco, he follows the trail of a capital crime, searching for the essential fatalities and emotions of the tragic experience: loss and grief, lie and truth, disaster and fear, cruelty and terror. Six actors and amateurs contemplate about the glamour and abysses of life and theatre and slip into the roles of the protagonists of a brutal murder case: A manifesto for a democratic theatre of the real emerges.





“에이프만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무용수들의 몸에서 쏟아져 나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되어 객석을 넘쳐 흐른다.”

“Eifman does not pause for breath in the telling of its story. His ideas pour out of the dancers' bodies and from the stage in an unstoppable flood.” The Guardian

# 에이프만 발레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Beyond Sin’ A Ballet by Boris Eifman

5.13 wed – 15 fri

7:30pm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소요 시간: 2시간(휴식 포함)  
Duration: 2hrs with an interval

Boris Eifman, one of the leading choreographers in the world is returning to Korea in 11 years with his two representative pieces ‘Beyond Sin’ and ‘Anna Karenina’. ‘Beyond Sin’ is a new choreographic interpretation of Dostoevsky’s novel ‘The Brothers Karamazov’. Also by having fundamentally rethought and reworked his own earlier production of 1995, Boris Eifman created an emotionally rich psychodrama ballet ‘Anna Karenina’.

© Souheil Michael Khoury

5.16 sat – 17 sun

sat 7pm  
sun 3pm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소요 시간: 2시간(휴식 포함)  
Duration: 2hrs with an interval

BALLET

#### 드라마틱 발레 거장의 귀환

러시아의 국민 안무가 보리스 에이프만이 러시아 문학의 정수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걸작 <안나 카레니나>로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 1977년 자신의 발레단을 창단한 에이프만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안톤 체호프, 미겔 데 세르반테스 등이 쓴 고전 문학 작품을 드라마틱 발레로 과감하게 재해석하며 찬사를 받아왔다. 지난 40년간 50여 편의 발레 작품을 선보인 그는 유럽 최고 권위의 예술상 ‘황금 마스크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고, 러시아에서 예술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러시아의 국민 예술가’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에도 러시아의 볼쇼이 극장, 마린스키 극장, 런던 새들러스 웰즈, 뉴욕 시티 센터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들을 투어하고 있으며, LG아트센터 무대에도 네 차례 오르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995년 초연된 에이프만의 대표작을 2013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19세기 러시아 소도시의 탐욕스러운 지주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세 아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 철학과 종교, 인간에 대한 거대한 화두를 던지는 이 대작 소설을 에이프만은 두 시간의 발레 작품으로 훌륭하게 압축하면서도 강렬한 문학성을 분출해낸다.

2006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상 수상작인 <안나 카레니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쥔 남편과 부족할 것 없는 삶을 누리던 안나 카레니나가 어느 날 우연히 청년 장교 브론스키를 만난 후 겪는 폭풍 같은 사랑의 감정을 그린 작품이다. 에이프만은 안나 카레니나가 겪는 사랑과 열정, 고통과 자기 파괴를 극적으로 표현해낸다.

고도로 훈련된 에이프만 발레단의 무용수들은 듀엣, 트리오, 군무를 오가며 위대한 러시아 문학에 담긴 깊은 철학과 수많은 인간의 감정들을 춤과 선으로 무대 위에 고스란히 되살리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에이프만 발레

## <안나 카레니나>

### ‘Anna Karenina’ A Ballet by Boris Eifman

© Souheil Michael Khoury





# 크리스탈 파이트 안무/연출

## <검찰관>

### Kidd Pivot 'Revisor' by Crystal Pite & Jonathon Young

5.22<sup>fri</sup> - 23<sup>sat</sup>

fri 7:30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90분(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rtitles.

DANCE X THEATRE

#### '무용 천재'라 불리는 그녀가 온다!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 영국 로열 발레, 캐나다 국립발레단,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등 세계 최고의 무용단체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무가. 현재 세계 무용계에서 가장 핫 한 안무가를 꼽자면 단연코 크리스탈 파이트가 그 선두에 있다.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가상, 세 차례의 '올리비에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 이력만으로는 결코 설명하기 어려운 크리스탈 파이트의 독특하고 매력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안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검찰관>은 크리스탈 파이트가 작가 조너선 영의 개인적인 비극과 트라우마를 공연으로 승화시키며 전 세계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21세기 최고의 무용극"이라고 극찬받았던 <베트뢰펜하이트>의 성공에 이어, 조너선 영과 다시 한번 손잡고 만든 작품이다.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쓴 <검찰관>은 19세기 초를 배경으로 러시아 소도시를 방문한 하급 관리자가 마을을 조사하러 온 검찰관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온 마을의 관료들이 그를 매수하려고 벌이는 소동을 그렸으며, 탐욕과 부패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돋보인다. 조너선 영은 파이트의 눈부신 안무에 맞춰 원작을 무용극으로 만들기 위해 대사를 절제하거나 반복하는 등 스크립트를 새롭게 창조했다. 대사와 춤은 나란히 공존하다 흠여지기를 반복하고, 애니메이션 혹은 짐 캐리의 연기를 보듯, 절제와 과장을 반복하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놀랍도록 깊고 복잡한 연극적 표현을 풍성하게 표현해 낸다. <검찰관>은 목소리와 텍스트, 조명과 음향효과, 세트와 움직임 등이 만들어내는 정교하고 절묘한 조화를 통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용극의 세계로 안내하며, 왜 전 세계가 크리스탈 파이트에 열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Jonathon Young and Crystal Pite revise an archetypal comic plot to serve as the basis for choreography in a true hybrid of contemporary theatre and dance. In 'Revisor,' eight Kidd Pivot dancers embody the recorded dialogue of some of Canada's finest actors, exploring conflict, comedy and corruption in the potent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e body. Pite & Young, the creators of the internationally acclaimed 'Betroffenheit' (winner of the Olivier Award for Best New Dance Production), reinvent dance/theatre with masterful skill. A perceptive critique of our society and its foibles, 'Revisor' delivers a powerful narrative in movement.

"크리스탈 파이트: 불가능을 무대로 삼는 무용 천재"

"Crystal Pite: the dance genius who stages the impossible." The Guardian

"바디 랭귀지와 연극적 움직임의 매혹적인 조합"

"Gripping blend of body language and stylised movement." The Guardian



# 알렉상드르 타로

## Alexandre Tharaud



“글렌 골드의 바흐처럼 타로의 라모는 시대악기 논쟁을 일격에 잠재운다”  
 “Alexandre Tharaud’s Rameau quashes the “period instrument” argument as successfully as Glenn Gould does for Bach” The Independent

6.9 tue  
 7:30pm

R 80,000  
 S 60,000  
 A 40,000

**PROGRAM**

베토벤, 라모, 드뷔시, 라벨, 사티 등  
 Beethoven, Rameau, Debussy, Satie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우아한 연주와 음악 양식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트레이드 마크”  
 “(It is) Played with Tharaud's trademark of  
 elegance, and with a keen sense of style”  
 BBC Music Magazine

프랑스 피아니즘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연주자  
 다채로운 색채감이 돋보이는 변화무쌍하고 신선한  
 해석의 J.S.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2016년 객석을 열광시키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알렉상드르 타로는 비범한 아이디어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터치, 넓은 스펙트럼의 색채감으로 자신의  
 주 종목인 쇼팽, 바로크 및 모던 프랑스 레퍼토리는  
 물론, 라흐마니노프, 베토벤, 상송, 재즈 등  
 연주하는 음악마다 예상치 못한 신선함을 안겨주며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 시대의  
 독특한 피아니스트다. 또한 뛰어난 글썬씨로  
 다수의 저서를 내놓았는데, 특히 작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된 그의 에세이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에선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콘서트 피아니스트의 삶과 깨달음을 시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음악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긴 바 있다.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리사이틀에선 타로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드뷔시, 라벨, 사티 등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과 함께 2020년 탄생  
 250주년을 맞는 베토벤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타로는 이미 여러 음반을 통해 프랑스 피아노  
 레퍼토리에 최적화된 감성과 연주력을 보여줬으며,  
 특히 최근에 발매된 <베르사유> 음반(Warner  
 Classics)에선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프랑스  
 예술이 활짝 피어난 17세기의 바로크 레퍼토리를  
 피아노로 연주하여 커다란 찬사를 받았다.  
 비상한 해석과 뛰어난 감성을 드러낼 이번  
 리사이틀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다.

French pianist Alexandre Tharaud, who wowed the packed audience with a unique interpretation of <Goldberg Variations> in 2016, returns to LG Arts Center in June. His artistic curiosity and endeavors for more than 25 years are reflected in his extraordinary discography covering baroque through to the major 20th century French composers. In his June recital, he will showcase his unparalleled renditions of French repertoire including Rameau, Debussy, Ravel, and Satie.



# 세븐 핑거스 <여행자> The 7 Fingers 'Passagers'

“회오리 바람을 연상시키듯 서커스 기술, 음악, 영상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다.”

“Passagers marries imagery, music and acrobatic performances in an evocative and inspiring whirlwind.” Le Devoir, Canada

##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여기 한 기차역이 있다. 누군가의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작별과 환영의 인사가 교차하는 곳.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머무는 곳. 이곳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8명의 여행자는 같은 곳을 향하는 기차에 탑승한다.

덴마크 리퍼블릭 씨어터와 공동 제작한 <보스 드림즈>로 2018년 LG아트센터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아트 서커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븐 핑거스가 최신작 <여행자>로 돌아온다. 태양의 서커스 출신 아티스트 7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컨템포러리 서커스 그룹 세븐 핑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2013년 미국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수상, 3번의 올림픽 공연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여행자>는 2018년 캐나다 아트마켓 시나르(CINARS)에서 극찬을 받은 최고 화제작으로 세븐 핑거스의 뛰어난 서커스 기술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드라마와 유기적으로 엮인 수작이다. 서커스 기술 중심의 에피소드식 구성을 뛰어넘어 음악, 안무, 연기, 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이는 이 작품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세븐 핑거스의 창립자이자, 서커스 분야 최고 경연 무대인 프랑스 몬디알 페스티벌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안무가 샤나 캐롤(Shana Carroll)이 안무/연출을 맡아 세븐 핑거스의 명성과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러시아, 유럽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달리는 <여행자>의 월드 투어행 기차는 2020년 6월, 드디어 한국에 정차한다. 기차역에 대한 향수와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이 기차를 절대 놓치지 말자!

6.17 wed — 20 sat

weekdays 7:30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90분(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rtitles.

## Notice

공연 중 포그 머신을 사용한 연기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the use of haze machine.

“세븐 핑거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 단체가 되었다.”

“Une des plus fameuses compagnies de cirque du monde.” Le Monde, France

In the spirit of the 7 Fingers' previous shows, 'Passagers' pushes the limits of the scenic experience in a quest to arrive at what is universal, extraordinary, indefinable, visceral and deeply personal within us all. 'Passagers' is a fusion of dance, physicality, music and acrobatics set against a backdrop where travel nostalgia meets the modern-day multimedia world. Shana Carroll, who directed and choreographed 'Passagers', has put together an exceptional design team for this show, which is complete with original musical compositions, an ingenious set and an international cast of eight artists. The narrative arc follows that of a journey: In a train car, strangers cross paths as they negotiate departures and arrivals, stillness and acceleration, the familiar and the foreign. 'Passagers' invites us to enter a fascinating world that reveals the tender intimacies of characters so much like ourselves.



## 스윙글즈

## The Swingles 'The Evolution'

6.21 sun

5pm

R 80,000  
S 60,000  
A 40,000

The legendary a cappella chorus the Swingles takes the LG Arts Center stage for the first time in June. The Swingles, formerly known as the Swingle Singer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to have changed the world of a cappella artistry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become the model of so many groups in the generations to come. Having earned five Grammys, the Swingles sing everything available in the world from classical to pop, rock, film and folk music. Be ready to enjoy an amazing night with the 7 voice masters.

## 50년 역사를 담은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 이 목소리의 무한한 다재다능함을 50년 넘도록 펼쳐 보인 전설적인 아 카펠라 그룹 스윙글즈가 LG아트센터 무대에 처음으로 선다.

스윙글즈는 1963년 미국인 보컬리스트 워드 스윙글(Ward Swingle)이 J.S. 바흐의 기악곡을 노래로 부르기 위해 프랑스에서 8인조로 결성한 스윙글 싱어즈가 모태이다. 음악계에 등장하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들은 2011년 이후 남녀 혼성 7명으로 재정비되었지만, 지난 57년간 클래식에서 팝, 록, 재즈, 전 세계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아우르며 경이로운 보이스의 예술을 전파해 왔다. 첫 앨범인 <Jazz Sébatien Bach>로 '그래미상'을 거머쥔 이래 지금까지 총 5회를 수상한 스윙글즈는 전혀 힘들이지 않은 것 같은

가볍고 민첩한 발성과 더불어 시종일관 살아있는 리듬과 에너지까지, 7명의 목소리라 믿기 힘들 만큼 정확하고 기민한 노래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해 왔다. 그리하여 스윙글즈의 음악성은 후대의 수많은 아 카펠라 그룹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음악 작곡가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어 루치아노 베리오가 이들을 위해 쓴 걸작 "신포니아"(1968)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스윙글즈는 50년이 넘는 그룹의 역사를 들려준다. 이들의 영원한 히트곡인 '바디네리'를 비롯한 J.S. 바흐의 기악곡 및 비틀즈의 인기 팝,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의 재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끊임없이 진화하며 인간 목소리의 가능성을 증명해온 아 카펠라 최고의 장인 스윙글즈의 어제와 오늘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 Nedim Nazerali

“지난 50년간 합창음악계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지만, 스윙글즈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유지하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The vocal and choral world has changed considerably in the last 50 years... But the Swingles have managed to hold onto to their distinctive niche and continue to thrive.” Chicago Sun-Times

“레이저 같이 정교하고, 신비로울 만큼 사랑스러운 화음”

“The Swingle Singers pitched those mysteriously lovely chords with laser-like precision” The Daily Telegraph



# 아크람 칸 <제노스>

## Akram Khan Company 'XENOS'

### 무용수 아크람 칸의 마지막 장편 솔로

방글라데시 출신의 런던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안무가로 우뚝 선 아크람 칸은 인도 전통춤 카타를 현대무용과 접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안무 세계를 만들어 왔다. 뛰어난 안무가이자 동시에 독보적인 무용수였던 아크람 칸은 실비 기엠프, 줄리엣 비노쉬,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와의 듀오 시리즈와 그의 전설적인 솔로작 <데쉬>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제노스>를 끝으로 무용수로서 은퇴를 선언했다.

<제노스>는 인류에게 불을 훔쳐준 대가로 매일 간을 뜯어 먹히는 고통을 받은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의 부름에 응답한 많은 식민지 군인들, 특히 영국을 위해 참전했던 100만 명의 인도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제노스(xenos)'는 외국인 혐오증을 나타내는 '제노포비아'의 어원이기도 하다. 아크람 칸은 이 작품을 통해 참전 병사들의 고통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언제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과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지 일깨운다.

인도의 한 마을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카타 무용수로 무대에 등장하는 아크람 칸은 포탄 소리와 함께 전쟁터의 비탈길에서 밧줄을 붙잡고, 대영제국을 위해 참전하여 최전방에서 통신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인도군으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펼쳐낸다. 붉은 경사무대에 늘어뜨려진 여러 개의 밧줄과 엉켜진 조명, 인도의 전통 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조화 사이로 언덕을 끝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고된 움직임은 곧 전쟁의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무명의 병사들을 위한 일종의 진혼제가 된다.

<제노스>에는 아크람 칸의 육체가 담아두었던 농축된 내공과 안무가로서의 명석함, 창작진들과 함께 쌓아 올린 진지한 고찰이 담겨있다. 과거 LG아트센터 무대에서도 만났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무용수로서 특별함을 증명했던 무용수 아크람 칸과는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겠지만, 이 작품을 통해 점점 더 밀도를 높여온 안무가로서의 행보에는 더 큰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 6.25<sup>thu</sup> - 27<sup>sat</sup>

thu-fri 7:30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65분(휴식 없음)  
Duration: 65mins with no interval

지연 관객 입장이 불가합니다.  
Latecomers may not be admitted.

### Notice

공연 중 무대 효과로 폭발음이 있어 심약자, 임산부는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an explosive sound.

### "위대함을 정의하는 작품"

**"A work of defining grea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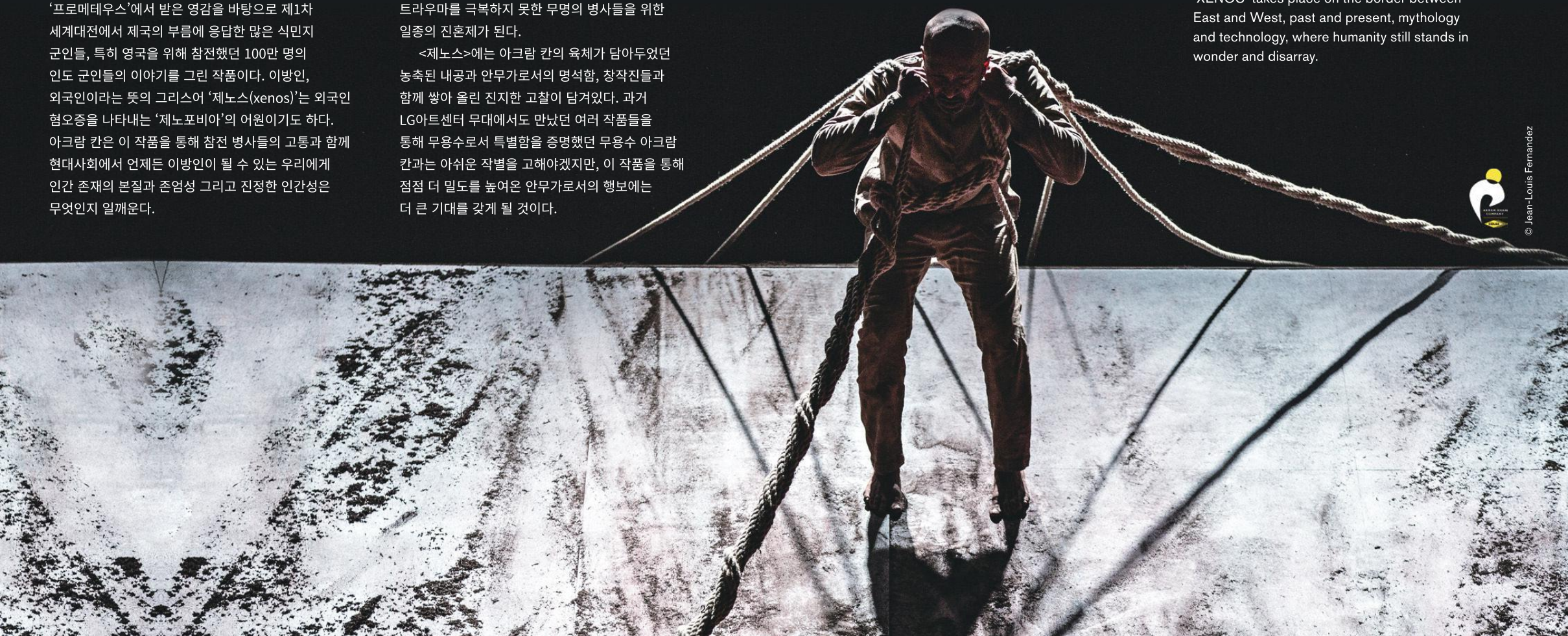
The Guardian

### "에너지, 공감 그리고 지성의 승리"

**"A triumph of energy, empathy and intelligence"**

The Telegraph

'XENOS' marks Akram Khan's last performances as a dancer in a full-length piece. He draws on the archives of the 20th century, and gives voice to the shell-shocked dream of a colonial soldier in the First World War. 'XENOS' reveals the beauty and horror of the human condition in its portrait of an Indian dancer whose skilled body becomes an instrument of war. Khan's movement language shifts between the Indian classical dance form, kathak and contemporary dance. 'XENOS' takes place on the border between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mythology and technology, where humanity still stands in wonder and disarray.



DANCE



© Jean-Louis Fernandez



“지금까지 이뤄낸 매튜 본 최고의 성취”

“Matthew Bourne’s finest achievement to date” The Stage

“무용으로 만들어져야 할 운명의 영화가 한 편 있다면 <레드 슈즈>이며, 그 감독은 매튜 본이다.”

“If ever there was a film destined to be reinvented as a stage ballet, ‘The Red Shoes’ is it — and Matthew Bourne is just the director to envision it.” Variety

9.16 wed – 27 sun

tue, wed & fri 7:30pm  
thu & sat 2:30pm & 7:30pm  
9.20 sun 2:30pm & 7:30pm  
9.27 sun 2:30pm

VIP 145,000  
R 120,000  
S 80,000  
A 60,000

소요 시간: 1시간 55분(휴식 포함)  
Duration: 1hr 55mins with an interval

관람연령: 8세 이상  
Age Guidance: 8+

본 공연은 별도로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매튜 본의 <레드 슈즈> Matthew Bourne’s production of ‘The Red Shoes’ A New Adventures Production

올리비에 어워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 ‘베스트 안무가’ 부문 수상(2017)

LA 드라마 크리티크 어워드 ‘안무가’ & ‘의상’ 부문 수상(2017)

내셔널 댄스 어워드 ‘최우수 여성 무용수’ 부문 수상(2017)

## 매튜 본의 완벽한 터치가 살려낸 클래식 영화의 감성

2019년 <백조의 호수>로 매진 신화를 이어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TIME) 매튜 본이 최신작 <레드 슈즈>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과 흥분을 선사한다. <레드 슈즈>는 안데르센의 동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매튜 본은 동화보다는 1948년 영국에서 제작된 동명의 고전 영화 <레드 슈즈>에서 영감을 받았다. 명감독 마이클 파웰(Michael Powell)이 연출하고, 전설적인 발레리노 로버트 헬프만(Robert Helpman)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1949년 ‘아카데미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며 꼭 봐야 할 고전 영화로 사랑을 받아왔다.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을 받은 버나드 허먼(Bernard Herrmann)의 음악 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대와 의상, 감각적인 조명 디자인이 추가된 매튜 본의 <레드 슈즈>는 1940년대 할리우드 황금기 시대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하는 발레리나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찬란하게 재현한다.

2016년 11월 초연 시 새들러스 웰츠에서 8주간의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2017년 뉴욕, 워싱턴, LA 투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7년 ‘올리비에상’에서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베스트 안무가 등 2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LA 드라마 크리티크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안무상, 최우수 의상상, 최우수 조명 디자인상 등을 석권하며 가장 성공한 매튜 본의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갱신하며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무용계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매튜 본. 그와 무용단의 모든 노하우가 결집한 <레드 슈즈>는 극장과 춤, 영화를 향한 절절한 헌사이자, 관객의 눈과 귀, 심장까지 사로잡는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다. 2020년 가을, 무대가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을 경험할 순간을 기쁘게 기다려 보자.



A beloved fairytale and Academy Award-winning movie, The Red Shoes has seduced audiences and inspired generations of dancers with its tale of obsession, possession, and one girl’s dream to be the greatest dancer in the world. Victoria Page lives to dance, but her ambitions become a battleground between the two men who inspire her passion. Set to the achingly romantic music of golden-age Hollywood composer Bernard Herrmann, Matthew Bourne’s magical adaptation of the legendary Powell and Pressburger film was sold out before its world premiere season even opened in 2016 and won two Olivier Awards. An intoxicating drama where life imitates art with fateful consequences, The Red Shoes will dazzle your senses and break your heart.



# 램버트 X 로이드 뉴슨 <엔터 아킬레스>

## Ballet Rambert & Sadler's Wells 'Enter Achilles'

A work by Lloyd Newson (DV8 Physical Theatre)

영국의 어느 펍, 8명의 남성들, 주크박스와 쌓여있는 맥주 잔  
사건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손꼽히는  
DV8 피지컬 씨어터의 안무가 로이드 뉴슨이 영국의  
펍 문화를 처음 무대 위로 끌어낸 지 25년이 지난 2020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댄스 컴퍼니 램버트와  
새들러스 웰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획기적인  
피지컬 씨어터 작품 <엔터 아킬레스>를 다시 무대화한다.  
<엔터 아킬레스>가 초연된 1995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이 작품은 맥주에 절여 있는 남성성의  
과격함과 유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남성다움”이라고  
구속하는 관념들”(The Observer)을 날날이 폭격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추악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우스꽂스럽다”(The Australian)는 평을 받은 이 작품은  
1995년 초연 후 전 세계 18개국을 투어하는 한편,  
TV 영화로도 만들어져 ‘에미상’과 ‘프리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전설적인  
로이드 뉴슨과 그가 직접 선발한 캐스팅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의 램버트와의 첫 협업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새로운  
<엔터 아킬레스>를 만나보자.

Twenty-five years after legendary dance  
iconoclast Lloyd Newson first dragged British  
pub culture kicking and yelling onto the stage,  
Rambert and Sadler's Wells present Newson's  
reworking of this “rare, rich, devastating, trium-  
phant work of art” (Daily Telegraph)

As pertinent now as it was when first staged  
in 1995, Enter Achilles wrestles with the notion  
of masculinity, through the funny, provocative  
and disturbing actions of eight men during an  
evening in a British pub.

The critically acclaimed original production was  
made into an Emmy Award-winning film. It now  
returns to the stage with a new cast, selected  
by Newson, in his first-ever collaboration with  
another company, the world-renowned Rambert.

10.30 fri —  
11.1 sun

fri 7:30pm  
sat 7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80분(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with no interval

관람연령: 19세 이상  
Age Guidance: 19+

지연 관객 입장이 불가합니다.  
Latecomers may not be admitted.

### Notice

만취, 폭력, 성행위에 대한 묘사 및 흡연, 마약, 누드,  
욕설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depictions of  
drunkenness, violence, sex and smoking of  
cigarettes, drug use, adult themes, nudity and  
strong language. No filming or photography.

“로이드 뉴슨의 강력하고도 스펙터클한 <엔터 아킬레스>는 남성다움의  
폭력성과 취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혼란스럽다.”  
“Lloyd Newson's powerful and spectacular new work,  
Enter Achilles, is about violence and vulnerability of manliness -  
funny, moving, disturbing.” Sunday Times



Timofey Kulyabin is undoubtedly among today's most talented and successful Russian directors of the new generation who has won recognition all over Europe. His Golden Mask Award-winning 'Onegin' removes all expectations of Pushkin's romantic novel in verse and places you not in some historical epoch, but in today's world, immersed in the inner thoughts, hopes, despairs, passions and disappointments that drift in, through and around the central figures, Onegin, Tatiana, Olga and Lensky. Instead of a classic "Encyclopaedia of Russian life" the performance shows a quiet love story, managing to convey the spirit of the great poet and proving that his work still resonates with the 21st century reality.

### 가장 연극적인 푸슈킨의 운율

세계적인 거장을 다수 배출한 연극 강국 러시아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하는 연출가 티모페이 쿨리아빈을 LG아트센터가 자신 있게 소개한다. 시베리아 중남부에 위치한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극단 레드 토치 씨어터를 이끌고 있는 쿨리아빈은 연극과 오페라를 넘나들며 현재 러시아 연극계의 중심과 유럽 연극계 전면에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 연출가다.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연출가들을 평가하는 러시아에서 30대 초반에 벌써 2개의 작품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골든마스크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쿨리아빈은 2016년에는 볼쇼이 극장의 오페라 연출을 맡으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한국 관객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안겨줄 연극은 2014년 골든마스크상 2개 부문을 수상한 <오네긴>으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에 바탕하고 있다. 삶의 권태에 사로잡힌 젊은 귀족 오네긴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타티아나 사이에 엇갈리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시적인 운율에 담아낸 이 독특한 형식의 소설은 19세기 초 러시아의 생활상을 잘 담아내 '러시아적 삶의 백과사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곤 한다. 러시아 문학을 세계 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오페라, 발레, 영화 등으로 만들어져 이미 많이 익숙해진 이 걸작을 쿨리아빈은 세월이 더해준 무게감과 교과서적인 해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손길을 가해 우리 시대의 관객들에게 공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오네긴과 타티아나, 렌스키, 올가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19세기 고전 속의 캐릭터들은 쿨리아빈의 비범한 연출과 레드 토치 씨어터 배우들의 선 굵은 연기를 통해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같이 꿈꾸고, 열망하고, 고뇌하고, 절망하는 가까운 현실 속 인물들로 재탄생한다. 흑과 백, 회색으로 가득한 무채색 무대 위에서 각 인물이 품고 있는 격정적인 내면과 그와 달리 우아하고 담담하게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는 화려한 원색 못지않게 강렬하고 선명한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21세기에도 영원한 걸작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11.6 fri —  
11.8 sun  
fri 7:30pm  
sat 5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2시간 40분(휴식 포함)  
Duration: 2hrs 40mins with an interval

관람연령: 19세 이상  
Age Guidance: 19+

러시아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Russian with Korean surtitles.

**Notice**  
공연 장면 중 흡연 및 분진 발생 장면이 있어 앞쪽 좌석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he performance includes scenes of smoking cigarettes and blowing powder that may affect some front seats.

THEATRE

## 티모페이 쿨리아빈 연출 푸슈킨의 <오네긴> Red Torch Theatre 'Onegin' by Timofey Kulyabin



“쿨리아빈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출가 중 하나이며 비르투오소다.”  
“Kulyabin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irectors of his generation and a virtuoso pro.” St. Petersburg Theatre Journal

© Viktor Dmitriev



2019 러시 아워 콘서트  
'쏟아플'



## 러시 아워 콘서트 RUSH HOUR CONCERT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뮤지션들이  
선사하는 눈부신 라이브

평일 저녁 7시, 복잡한 퇴근길을 피해 콘서트장으로 향하자. 탁월한 음악성과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동시대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20년에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팝, 록, 재즈, 국악,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될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음악이 주는 짧은 휴가를 만끽하자.

"Escape the chaotic rush hour traffic, and enjoy a concert instead." Stretching across diverse disciplines such as pop, rock, jazz,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world music, 'Rush Hour Concert' presents live stages of contemporary musicians who boast musical excellence and extraordinary character. Come and join the 'Rush Hour Concert' on a weekday at 7pm to forget the stress of everyday life and to cherish the happy moments.

\* 러시 아워 콘서트의 라인업과 예매 일정은 2020년 1월 중 LG아트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고지됩니다.

CoMPAS20 sponsored by



CoMPAS20 Shinhan Card Art Collection sponsored by



CoMPAS20 supported by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TMI는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만나시면, 관람의 깊이와 기쁨이 커집니다.

## CoMPAS20 Discount Information

Ticket sales for each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ue 21, Jan 2020**

Ticket sales for Matthew Bourne's 'The Red Shoes' will be announced later.

### Early Bird Discount

~ sat, 29 Feb

- Receive a discount of 15% on each performance, available until 29 Feb 2020.

### Get-together Discount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20% discount for a group of 4 or more people who purchase the same grade for the CoMPAS20 programs. (The first 100 seats per performance.)

### Youth Discount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those born after 1 Jan 1997.
- 30% off for A seats / 20% off for R and S seats
-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when collecting your ticket. (If not, you will be charged for the difference on site.)

### Silver Discount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those born before 31 Dec 1956.
- 20% off for R, S and A seats
-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when collecting your ticket. (If not, you will be charged for the difference on site.)

### Shinhan card Art Collections Discount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20% discount for 'Shinhan Card Art Collections' programs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The first 200 seats per program)
- Apply to follow programs: Eifman Ballet, Kidd Pivot 'Revisor', The 7 Fingers 'Passagers', Matthew Bourne's 'The Red Shoes', 'Onegin' by Timofey Kulyabin

### Shinhan card Discount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10% discount for every program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 Notice

Weekday CoMPAS20 programs start at 7:30pm.

- Discounts may not be applied more than once or in a retroactive manner.



# CoMPAS20 Program Packages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hu, 16 Jan 2020**

## Package Information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or by visiting our box office.
-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programs comprising the package. Only in case of R seats package, you can upgrade your seat to VIP.
- Cancell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package are not accepted once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package has been staged. However, you may change the performance dates provided that the subject tickets pertain to the same show.
- Package purchasers will receive a special package card.
- Package purchasers can get individual tickets at a 20% discount for up to two guests that accompany them to each individual program of the package.



**Ticket sales for Matthew Bourne's  
'The Red Shoes' will be announced later.**

Please note that Matthew Bourne's 'The Red Shoes' is not included in all packages.

## For inquiries on package purchases, please contact us by

- Online: [www.lgart.com/eng](http://www.lgart.com/eng)
- Box Office: weekdays 9am-6pm  
(Closed on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 Tel: +82-2-2005-0114
- E-mail: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 The Doubles Package

until Tue, 31 March

**30% savings on 7 or 8 theatre, dance and circus programs below**

\* You can choose one or two performances of Eifman Ballet for the package

1-3 April  
Milo Rau 'The Repetition. Histoire(s) du théâtre (I)'

13-15 May  
'Beyond Sin' A Ballet by Boris Eifman

16-17 May  
'Anna Karenina' A Ballet by Boris Eifman

22-23 May  
Kidd Pivot 'Revisor' by Crystal Pite & Jonathon Young

17-20 June  
The 7 Fingers 'Passagers'

25-27 June  
Akram Khan Company 'XENOS'

30 Oct – 1 Nov  
Ballet Rambert & Sadler's Wells 'Enter Achilles'  
A work by Lloyd Newson (DV8 Physical Theatre)

6-8 Nov  
Red Torch Theatre 'Onegin' by Timofey Kulyabin

**with one performance of Eifman Ballet**

<b>VIP+R</b>	600,000 → <b>420,000</b>
<b>R</b>	580,000 → <b>406,000</b>
<b>S</b>	440,000 → <b>308,000</b>
<b>A</b>	300,000 → <b>210,000</b>

**with both performances of Eifman Ballet**

<b>VIP+R</b>	720,000 → <b>504,000</b>
<b>R</b>	680,000 → <b>476,000</b>
<b>S</b>	520,000 → <b>364,000</b>
<b>A</b>	360,000 → <b>252,000</b>

## The Russian Literature Package

until Tue, 12 May

**20% savings on all 4 theatre, dance programs based on Russian literature below**

13-15 May  
'Beyond Sin' A Ballet by Boris Eifman

16-17 May  
'Anna Karenina' A Ballet by Boris Eifman

22-23 May  
Kidd Pivot 'Revisor' by Crystal Pite & Jonathon Young

6-8 Nov  
Red Torch Theatre 'Onegin' by Timofey Kulyabin

<b>VIP+R</b>	400,000 → <b>320,000</b>
<b>R</b>	360,000 → <b>288,000</b>
<b>S</b>	280,000 → <b>224,000</b>
<b>A</b>	200,000 → <b>160,000</b>



## The Eifman Package

until Tue, 12 May

15% savings on all 2 performances of Eifman Ballet

13-15 May  
'Beyond Sin' A Ballet by Boris Eifman

16-17 May  
'Anna Karenina' A Ballet by Boris Eifman

VIP	240,000 → 204,000
R	200,000 → 170,000
S	160,000 → 136,000
A	120,000 → 102,000

## The Free Choice Package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CoMPAS20 programs selected. Three types of price packag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seat grades. If you purchase the R-Package, you will be eligible to upgrade your seat to VIP where applicable. You may not select a certain program more than once to make up the 9, 6 or 3 program package.

35% savings on 9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Tue, 12 May

25% savings on 6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Mon, 8 June

15% savings on 3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Wed, 24 June



## 제휴 레스토랑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단, 각 레스토랑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할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 및 쿠폰과 중복할인 불가)



### CAFÉ

**메인 로비 카페**  
당일 티켓 소지 시 10% 할인



### RESTAURANT

(가나다순)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월-토 11:30-22:00  
일 11:30-21:30  
(브레이크 타임 15:00-17:30)  
코스 메뉴 15% 할인  
(티켓 1매당 1세트)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뷔페 레스토랑)  
02-2050-6034  
11:30-14:30  
쏘도베 레스토랑 런치 10% 할인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2:00 (일요일 휴무)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분짜라뽀**  
(베트남 하노이식 분짜 & 쌀국수)  
02-567-5379  
11:00-22:30  
1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평일 11:30-14:30 / 17:30-22:00  
주말 12:00-16:00 / 17:0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와인주막차차 역삼점 (와인 & 한식)**  
02-554-0722  
평일 11:00-14:00 / 17:30-00:30  
토 17:30-00:30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5% 할인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